

『列聖御製』에 실린 조선 국왕의 題畫詩 연구

金 南 基*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국왕 題畫詩의 전개 양상 |
| II. 국왕의 그림과 題詠 한시 | IV. 국왕 제화시의 역사적 의미 |

I. 머리말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 지배적인 이념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문학과 書畫를 餘技로 여겨 玩物喪志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지만 직접 서화를 제작하고 품평하는가 하면 이를 시문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국왕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¹⁾ 국왕은 전문적으로 서화에 몰두할 수 없어 높은 예술적 성취를 이루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국왕의 서화에 대한 관심과 품평은 당대 서화의 경향을 반영하는 한편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주었다. 국왕이 治者의 입장에서, 혹은 문예에

* 서울대 규장각 연구원

1) 肅宗, <題宋徽宗耕蠶圖>(『列聖御製』 권15). “余觀古畫, 自不無愛之之心, 愛者即指神妙處而言, 非玩物喪志也. 若夫畫意非偶, 則亦未嘗不法善戒惡焉.”

대한 관심의 표명에서 어떠한 서화를 감상하고 이를 문예적으로 펼쳤는지를 살피는 것은 당대 서화의 경향과 전망을 고찰하는 데에도 유용한 근거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 동안 회화 내지 題畫詩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국왕의 제화시에 대한 연구로는 진준현의 「肅宗의 書畫趣味」²⁾를 대표적인 성과로 들 수 있다. 진준현은 숙종의 서화관련 시문 목록³⁾을 제시한 뒤 이를 소재와 내용 별로 분류하여 살피고 숙종의 서화 취미와 화가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숙종이라는 한 국왕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피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자료의 정리에 주안점을 두었기에 題畫詩 자체에 대한 분석이 매우 소략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국왕의 그림에 대한 인식 및 그 변화 양상과 의미를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국왕의 시문을 편차하여 간행한 『列聖御製』⁴⁾ 중에서 題畫詩文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列聖御製』에 수록된 역대 국왕의 제화시문 편수⁵⁾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太祖 권1 <題西京影殿御容> 1수
 世祖 권3 <出四時圖簇示羣臣御製詩令判司宰監事成任書于簇> 1수
 成宗 권5 <寫蘭竹併題> 등 3제 5수

2) 陳準鉉, 「肅宗의 書畫趣味」(『서울大學校博物館年譜』7, 1995).
 3) 진준현은 숙종의 시문 1,057편 가운데 서화 관련 시문은 169편이라 하였다. 그러나 숙종의 시 577題 816首, 문 292편 가운데 글씨[書]를 제외한 題畫詩文은 시 82題 136首, 문 29편이다. 또한 시문 제목의 경우 숙종의 <仁祖大王御書求覓於東平君矣, 果獻一金筓, 卽乘槎之圖也, 筆力神異, 手澤宛然, 雙手擎來感慕深增, 謹以御書糊之他紙, 作之障子, 敬題一絕, 以寓欽玩焉>을 <敬題仁祖大王御書>로 줄여서 적기도 하였다.
 4) 『列聖御製』의 편찬과 체제 및 수록 시문에 대해서는 李鍾默의 「藏書閣 소장 『列聖御製』와 國王文集의 편찬과정」(『藏書閣』 장간호, 1999)와 金南基의 「『列聖御製』 解題」(서울大學校 奎章閣, 2002) 참조. 규장각에서는 2002년에 태조부터 영조까지의 『列聖御製』를 5책으로 간행하였고, 연차적으로 철종까지의 『列聖御製』를 완간할 계획이다.
 5) 제화시문 편수의 경우 詩題에 圖나 畫 등 그림임이 분명하거나 내용상 그림을 보고 지은 경우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瀟湘八景>, <關東八景>처럼 제화시로 추정되지만 불명확한 경우는 편수에서 제외하였다. 추후 재검토가 필요하다.

- 권6 <尊兄畫像贊> 1편
宣祖 권7 <題書> 등 2수
肅宗 권9 <列仙圖> 등 11제 12수
권10 <題阿房宮圖> 등 22제 27수
권11 <題趙孟頫八駿圖> 등 26제 39수
권12 <觀銅人明堂圖> 등 39제 53수
권14 <歷代君臣圖像小帖序> 등 2편
권15 <題宋徽宗耕蠶圖> 등 10편
권16 <國舅光城府院君圖像贊> 등 17편
별편2 <題贈領議政吳達濟梅畫圖> 등 4수
* 합 시 82제 136수, 문 29편(전체 시 577제 816수, 문 292편)
英祖 권18 <題山水圖> 등 5제 27수
권19 <覽古勳臣畫像而作五首> 등 2제 6수
권20 <摹寫影幀時作六首> 등 2제 8수
권21 <題青山白雲圖> 1수
권35 <題關東賑民圖> 등 3편
권36 <夙興夜寐箴圖下小識> 등 2편
권37 <月光蒼蠅圖贊> 등 6편
별편3 <穆廟御書小識> 1편
* 합 시 10제 40수, 문 12편(전체 시 524제 831수, 문 691편)
正祖 권38 <題折檻圖> 등 12제 21수
권43 <畫像自贊庚寅> 등 7편
純祖 권79 <城市畫記> 등 2편
翼宗 권91 <西山觀燈市圖> 등 2수
권92 <詠雪梅圖> 등 3수
권93 <題江山圖障> 등 3수
권95 <畫像自贊> 1편
哲宗 권101 <金洙根畫像贊> 등 3편

이상에서 보듯이 조선의 국왕 중에서 제화시문을 남긴 임금의 태조부터 철종까지 모두 10명이다. 단 연산군과 광해군, 고종과 순종의 시문은 『列聖御製』에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논의에서 제외한다. 제화시문을 많이 남긴 임금으로는 성종, 숙종, 영조, 정조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숙종의 경우 역대 어느 임금보다 많은 제화시문을 남기고 있어 주목된다.

II. 국왕의 그림과 題詠 한시

임금이 그림을 감상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기록으로 볼 때 고려조에 恭愍王의 天山大獵圖, 조선조에 성종의 蘭竹圖, 인종의 石竹圖, 선조의 墨蘭圖·墨竹圖, 인조의 柳下繫馬圖·乘槎圖, 영조의 列仙圖·山水人物圖 등이 있다.⁶⁾ 이 중에서 인종과 영조의 그림은 국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그린 것이다. 임금이 그림을 거의 그리지 않은 것은 그들의 회화적 재능 못지 않게 書畫를 餘技로 여기던 당대의 성리학적 질서가 크게 작용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왕의 그림에 제영한 한시로는 성종, 김인후, 이안눌, 숙종 등의 작품이 있다. 이 중에 김인후는 인종의 석죽도, 이안눌은 선조의 묵죽도, 숙종은 공민왕의 천산대렵도, 인조의 승사도, 연잉군의 열선도와 산수인물도에 題詩하였듯이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고 쓴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성종은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쓴[自畫自題] 경우에 해당한다. 그림에 제영한 작품이 오래된 것부터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성종은 經史부터 射藝書畫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 묘함을 다하였다고 평가받았을 정도로 여러 학문에 조예가 깊었다.⁷⁾ 다음은 성종이 蘭竹圖를 직접 그린 뒤 지은 <寫蘭竹併題> 2수 중 제1수이다.

歲寒尤秀傲霜枝
人瘦清風自不知
隨月似尋棲鳳影
處春聊得化龍姿
雪天抱節人多愧
粉苑含香態更奇
移籀他年要選地
須教翠幹拂雲漪

추워진 뒤 더 뛰어나 서리를 傲視하고
清風에 아위어도 절로 알지 못한다네.
달을 좇아 봉황 등지 찾는 듯하고
봄날에 애오라지 용의 자태 얻겠지.
눈 내린 날 절개 있어 사람 많이 부끄럽고
宮苑에서 향기 띠어 자태 더욱 기이하네.
다른 해에 땅을 가려 대나무를 옮겨서
푸른 줄기 하늘까지 자라도록 하리라.⁸⁾

6) 위의 그림 중에서 現傳하는 것은 공민왕의 天山大獵圖(후대의 模本), 인종의 石竹圖, 선조의 墨竹圖이다. 나머지 그림은 현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화시와 관련 기록을 통하여 그 대강은 짐작할 수 있다.

7) 上貫通經史, 尤達於性理之學, 至於百家星曆鍾律, 靡不通曉, 射藝書畫, 亦臻其妙(李肯翊, 『燃藜室記述』). 吳世昌의 『槿域書畫微』(권3) 成宗條에서 인용.

서리와 눈을 이겨내고 푸르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의 속성과 그것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심정을 표현하였다. 竹實을 먹고 사는 봉황이 깃드는 대나무의 탈속적인 경지, 봄날 용트림하듯 솟는 竹筍의 위용, 추위에 굴하지 않고 푸르름을 견지하는 대나무의 절조를 노래한 뒤 그 대나무가 하늘 높이까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상을 갈무리하였다.

인종은 세자 시절에 石竹圖를 그려 스승인 金麟厚(1510~1560)에게 하사하였고, 김인후는 1543년(중종 38)에 다음과 같이 題詩하였다.

根枝節葉盡精微	뿌리 줄기 마디 잎새 모두다 정미하여
石友精神在範圍	돌을 벗한 정신이 화폭 속에 담겨있네.
始覺聖神倖造化	성스러운 세자께서 조화를 짝하시니
一團天地不能違	하나의 천지와 어긋남이 없으시네. ⁹⁾

바위에 뿌리를 서린 채 하늘을 능지르는 대나무의 기상, 그리고 그 대나무의 뿌리와 줄기, 마디와 잎새를 정미하게 화폭에 담아낸 솜씨를 칭송하였다. 나아가 천지의 조화를 온전하게 화폭에 담아낸 인종의 畵品이 매우 비범함을 극찬하고 있다. 인종의 그림은 후에 模刻되었거니와¹⁰⁾ 李安訥은 선조의 墨竹圖를 보고 시를 쓰면서 김인후의 시편에 대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다.

선조는 서화에 조예가 있었는데, 대나무와 난을 매우 잘 그렸다고 한다. 金正禧는 우리나라에서 난을 잘 치는 사람이 없었는데, 선조는 宋人의 蘭法을 잘 터득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하나의 화폭에 王竹·惡竹·正筍을 그려 신하들에게 보인 뒤 자신과 光海君·永昌大君의 관계를 비유하기도 하였다.¹¹⁾ 다음은 李安訥(1571~1637)이 1618년(광해군 10)에 선조의 墨竹圖를 보고 지은 작품이다.

8) 成宗, <寫蘭竹併題二首>(『列聖御製』 권5). 제2수는 “閑盡蕭條歲暮天, 謝庭芳艷玩孤妍. 花清恰覺供詩眼, 香旺偏憐滷酒筵. 琴操少知醒熱夢, 驅風稀悟詠寒賢. 一看寧寶梅家譜, 炎熾尤醫我意煎”이다.

9) 金麟厚, <應製題睿畵墨竹癸卯>(『河西集』 권6).

10) 『한국서예사특별전22 朝鮮王朝御筆』(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2003) 도록 참조.

11) 吳世昌, 『槿域書畵徵』 권4 宣祖條 참조.

曾聞三色桃花伐
却觀琅玕寫一莖
四十二年培養地
幾人今日保堅貞

일찍이三色桃를 베었다고 들었는데
푸른 대 한 줄기를 문득 보게 되었네.
마흔 두 해 배양한 땅에서
오늘날 몇 명이나 고풍을 보존했나?¹²⁾

이안눌은 詩序에서 선조의 墨竹圖가 羅州에서 목판으로 인간된 것을 보고 김인후의 시를 본받아 題詩한다고 하였다. 제1구는 선조가 궁중에 있던 三色桃를 베어 없애라고 한 뒤 지은 <三色桃>(『列聖御製』 권9)를 옆두에 두고 표현한 것이다. 선조는 <三色桃>에서 사물의 變轉을 들어 인사의 無常을 비판하였다. 이어서 선조가 그린 墨竹圖를 보게 된 감회를 피력하였다. 선조가 42년의 재위 기간 동안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지만 광해군이 집정한 지금, 즉 영창대군이 죽고 인목대비가 폐위되는 현실에서 과연 대나무처럼 올곧은 신하가 몇 명이나 되는가 라고 개탄하였다. 선조가 三色桃를 베고 대나무를 그린 뜻이 현실에서 견지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한 시라 할 수 있다.

숙종은 역대 국왕 내지 延祚君(영조)의 그림을 보고 여러 편의 제화시를 남겼다. 송 徽宗의 白鷹圖, 명 宣宗의 水墨圖 등 중국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恭愍王의 天山大獵圖, 仁祖의 乘槎圖, 延祚君의 仙人圖와 山水人物圖 등을 보고 <題恭愍王天山大獵圖>(권9), <仁祖大王御畫求覓於東平君矣, 果獻一金箒, 卽乘槎之圖也, 筆力神異, 手澤宛然, 雙手擎來感慕深增, 謹以御畫糊之他紙, 作之障子, 敬題一絕, 以寓欽玩焉>(권9), <題延祚君自畫仙人圖>(권11), <題延祚君圖寫山水人物>(권12)을 지었다. 이 중에서 인조의 乘槎圖와 연잉군의 산수인물도에 제영한 작품을 차례로 살펴보자.

神筆猶餘御墨香
分明手澤宛如常
奴僕龍眠何足擬
擎來祇切慕羹墻

神筆의 임금 墨香 아직도 남았는데
분명하게 手澤이 평소처럼 완연하네.
노복이 龍眠(李公麟)에게 어찌 족히 견주리오?
받들어 보니 사모의 마음 더욱더 간절하네.¹³⁾

12) 李安訥, <恭題宣祖大王御筆墨竹圖>(『東岳集』 권12). 詩題 다음에 “曾見金河西題成廟御筆墨竹圖末曰, ‘根枝節葉盡精微, 石友精神在範圍. 始覺聖神伴造化, 一團天地不能違’, 刊行于世. 今者羅州印本墨竹, 乃我宣祖大王御筆也. 敢效河西體, 作爲絕句, 敬書其下. 恭惟宣祖大王嘗於禁中, 命伐三色桃樹, 因有詩曰, ‘夭桃一朵花, 變幻二三色. 植物尙如此, 人心應反側’, 故首句云”이 있다.

運毫多意思
寫景有規度
無事龍樓日
披圖二美具

運筆에 생각이 많이 있고
寫景에 법도가 있구나.
궁중에서 일이 없는 날에¹⁴⁾
그림을 펼쳐보니 二美가 갖춰졌네.¹⁵⁾

인조의 乘槎圖와 연잉군의 山水人物圖를 본 뒤 각각 1695년(숙종 21)과 1713년(숙종 39)에 지은 것이다. 숙종은 東平君 李杭의 집에 있는 인조의 乘槎圖를 구하여 臨模하고 병풍으로 만드는 한편 선왕의 그림을 직접 본 뒤 느낀 사모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연잉군이 그린 산수인물도를 보니 공부의 여가에 그림을 그렸는데, 運筆과 寫景이 모두 법식에 맞음을 칭찬하였다. 또한 숙종은 연잉군의 仙人圖를 보고 ‘평소에 그림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림이 절로 좋다(初圖元自好, 平日不曾教)’라 하여 연잉군이 그림에 재주가 있음을 찬탄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역대 국왕이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그 그림에 제영한 한시는 편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한 畫題도 蘭竹과 같은 四君子類 내지는 神仙圖·山水人物圖일 정도로 매우 협소하다. 게다가 신선도 내지 산수인물도의 경우에도 국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그린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선조에 국왕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당대의 성리학적 질서 속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았으며, 四君子類와 같은 그림이 제한적으로 용인된 것으로 보인다.

Ⅲ. 국왕 題畫詩의 전개 양상

1) 조선전기 국왕의 제화시

13) 肅宗, <仁祖大王御書求覓於東平君矣, 果獻一金箋, 卽乘槎之圖也, 筆力神異, 手澤宛然, 雙手擎來感慕深增, 謹以御書糊之他紙, 作之障子, 敬題一絕, 以寓欽玩焉> (『列聖御製』 권9).
14) 龍樓는 본래 漢代의 태자 宮門 이름으로 태자를 가리키나 후대에 龍樓鳳池와 함께 쓰여 궁궐을 의미하기도 한다.
15) 肅宗, <題延祜君圖寫山水人物>(『列聖御製』 권12).

『列聖御製』에 수록된 태조부터 선조 연간까지의 그림 관련 시문은 조선후기에 비하여 매우 적다. 太祖의 <題西京影殿御容> 1수, 世祖의 <出四時圖簇示羣臣御製詩令判司宰監事成任書于簇> 1수, 成宗의 <寫蘭竹併題> 등 4제 6수와 <尊兄畫像贊> 1편, 宣祖의 <題畫> 등 2수가 전부이다. 이것은 지금 남아 있는 『列聖御製』가 인조 이후에 편차되었고, 양란으로 인하여 많은 시문이 일실된 것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관련 시문도 산수화 계열이 대부분이고, 화상찬 내지 화훼영모도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물론 왕실에서 幽風七月圖, 三綱行實圖 유형의 그림을 제작하거나 신하들이 진상한 점으로 미루어 愛民의 관심을 드러낸 시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작품이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실상은 알 수 없다.¹⁶⁾

먼저 태조가 북쪽을 순행하다가 평양 影殿에 있는 자신의 御容을 보고 지은 <題西京影殿御容>을 살펴보자.

薄相胡爲在此中
深思此理古人風
朝鮮始祖雖稱號
德乏前賢愧不窮

薄福한 모습이 어찌 여기 있게 되었나?
그 까닭 생각하니 고인의 遺風이네.
조선의 시조라고 비록 일컬을지라도
덕이 前賢에 모자라 부끄러움 끝이 없어라.¹⁷⁾

자신의 화상을 보며 비록 조선을 건국한 임금이지만 옛날의 성현들에 비하여 덕이 부족함을 부끄러워하는 심정을 표현하였다. 태조의 御眞은 건국 초기에 全州·慶州·平壤에 모시고 御容殿이라 하였는데, 1412년(태종 12)에 太祖眞殿이라 고쳐 부르게 하였다.¹⁸⁾ 훗날 태종의 명에 따라 여러 신료가 태조의 시에 차운하여 바쳤는데, 權近은 태조의 이 시편은 仁德을 겸양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였다.¹⁹⁾ 그리고 숙종은 1677년에 南別殿에 보관하였던 태조의 영정을

16) 1399년에 崔有慶이 無逸圖, 1411년에 李文和가 稼穡圖, 1498년 成倪이 耕織圖 등을 임금께 진상하였고, 세종은 1424년에 卞季良에게 중국의 빈풍칠월도 및 무일도를 본떠 우리 백성의 어렵고 힘든 생활을 담은 그림을 月속의 형식으로 제작하라고 명하였고, 9년 뒤에 다시 우리 나라의 풍속에 바탕한 빈풍칠월도를 제작하라고 교시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병모의 『한국의 풍속화』 중 「빈풍칠월도류 회화」 부분 등을 참조.

17) 太祖, <題西京影殿御容>(『列聖御製』 권1).

18) 『太宗實錄』 권24, 태종 12년 11월 5일(병신).

慶德宮 資政殿으로 옮기고 <瞻拜資政殿太祖御容>을 지었다.²⁰⁾

棘籬多萃雀	가시 울타리에 참새가 많은데
桃花滿枝紅	복사꽃은 가지 가득 붉구나.
四面皆春色	사방이 봄빛으로 덮였는데
遊蝶無西東	나비는 동서 없이 나는구나.
一朝楓葉落	하루아침에 단풍잎이 떨어지니
青青獨有松	푸른 것은 오로지 솔뿐이네. ²¹⁾

위의 시는 세조가 1457년(세조 3) 11월 27일 궁중에 소장된 四時圖 족자와 함께 내어서 群臣들에게 보인 뒤 成任에게 족자에 쓰라고 명한 것으로 실록에도 실려 있다.²²⁾ 세조는 四時圖의 화폭 중에서 중요한 국면만을 포착하여 시화하였다. 봄날의 붉은 복사꽃, 나비와 참새 떼를 제시하다가 비약적으로 단풍이 진 뒤 獨也青青하는 소나무의 자태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데, 節操를 우의적으로 가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성종은 앞서 살펴본 <寫蘭竹併題> 이외에 <題畫二首> 등 산수도와 翎毛圖를 보고 지은 시편 3수와 月山大君 嬪의 화상찬인 <尊兄畫像贊> 1편이 있다. 선조는 산수도를 보고 지은 <題畫> 2수가 있다. 성종과 선조는 산수도를 보고 지은 시의 경우 감정을 절제한 채 그림의 시적 재현에 치중하였다. 다음은 선조의 <題畫>로 험준한 바위산에 꿩길 듯 말 듯 이어진 좁은 길 저 편에 고즈넉히 자리잡은 집, 그리고 구름이 서린 곳에 仙境이 있는 지 흐르는 물에 꽃잎이 두둥실 떠오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危石巉巖斷逕斜	높고 험한 바위에 비탈길이 꿩길 듯 있고
春山寂寂有人家	고요한 봄 산에 인가가 있구나.
眞源定在雲深處	眞源이 정말로 구름 깊은 곳에 있어서
流水浮來滿澗花	시내 가득 꽃잎이 물결에 떠오네. ²³⁾

19) 權近, <上製詩序>(『陽村集』 권19).

20) 肅宗, 『列聖御製』 권9. “累仁積德創鴻基, 偉烈豐功宇宙垂. 今幸獲瞻天日表, 悅如平昔倍增悲.”

21) 世祖, <出四時圖簇示羣臣御製詩令判司宰監事成任書于簇>(『列聖御製』 권3).

22) 『世祖實錄』 권10, 세조 3년 11월 27일(정해).

23) 宣祖, <題畫>(『列聖御製』 권7).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전기 국왕들의 제화시는 畫題가 매우 제한되고 남아있는 시편도 적다. 또한 시상의 전개도 일부 작품을 제외하고 그림의 재현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조선후기에는 임금들이 어떠한 화제를 수용하고 어떻게 형상화하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선 후기 국왕의 제화시

조선 후기 국왕의 제화시는 작품의 편수가 전기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아질 뿐만 아니라 畫題도 매우 다양해진다. 화제의 측면에서 볼 때 산수도, 초상화류의 인물도, 화훼영모도, 風俗圖, 地圖, 故事圖, 神仙圖 등 대부분 유형의 그림이 등장한다.²⁴⁾ 이러한 다양한 화제의 등장은 조선 후기 국왕들의 그림에 대한 관심이 폭넓었음을 반증한다. 동시에 18·19세기에 확산되는 古董書畫 취미와도 일정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수도, 화상찬류의 인물도, 영모 화훼도는 전대부터 유행하던 그림이고, 국왕뿐만 아니라 문인들도 이를 보고 시문으로 짓기도 하였다. 또한 신선도도 양란 이후 많이 제작되어 향유되던 그림이기에 조선 후기 국왕 제화시의 특징을 부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다만 산수도 중에서 우리나라의 승경을 그린 작품들은 조선 후기의 새로운 화풍의 등장과 관련지을 때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조선 후기 국왕들의 제화시 중에서 당대의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당대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애민의식을 보여주는 風俗圖 유형, 역사적 인물과 사실 등을 통하여 褒貶 또는 교화의 방책으로 삼는 故事圖 유형, 우리의 산하를 화폭에 담은 '眞景山水畫' 유형, 국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도의 제작과 그에 대한 국왕의 생각을 보여주는 地圖 등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²⁵⁾

24) 제화시의 제제와 詩題는 부록의 작품 목록을 참조.

25) 물론 風俗圖, 故事圖, 地圖 등의 제작은 그 연원이 깊고 관련 기록이 實錄 등에 자주 보인다. 그러나 국왕이 이러한 작품들을 보고 여러 편의 시문으로 지은 것은 조선 후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 민생의 반영과 애민의 토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인지라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왕은 백성들의 생활상을 살펴 궁핍하거나 억울한 백성이 있으면 스스로 반성하고 방책을 강구하였다. 민생을 살피고 자성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幽風七月圖, 無逸圖, 耕織圖 등을 옆에 놓고 보면서 이를 시문으로 짓는가 하면 우리 백성의 참상을 그린 그림을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을 구제할 방도를 찾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된 시문으로는 숙종의 <奏請使右議政崔錫鼎等回自燕京進畫帖一本乃耕織圖而清皇自製序文絕句而寫之書與畫皆刊印者也其所以形容稼穡女紅之艱者頗詳悉洵可觀也遂摸作二屏障欲以誨諭世子也各題律詩一首> 2수, <題江原道監賑御史吳命峻所進嶺東飢民圖> 4수, <題稼穡艱難圖> 4수, <題宋徽宗耕蠶圖>, 영조의 <題關東賑民圖>, <題耕織圖并贊>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耕織圖 유형의 작품을 보고 지은 시문을 살펴보자. 숙종은 최석정이 奏請使로 연경에 갔다가 1697년(숙종 23) 9월에 復命하면서 바친 佩文齋耕織圖를 받아본 후 두 폭의 병풍으로 만들어 세자에게 농사와 蠶織의 어려움을 깨우치는 시를 짓는가 하면²⁶⁾ 1705년(숙종 31)에 송 徽宗의 耕蠶圖를 보고 題跋을 붙이기도 하였다. 숙종은 <題宋徽宗耕蠶圖>에서 자신은 그림을 보며 선을 본받고 악을 경계하거니와 耕蠶圖 속에서 농가의辛苦와 女工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림은 그 다음이라고 하였다.²⁷⁾ 영조도 1744년에 연경에서 가지고 온 경지도를 보고 경지도 46폭에는 농부와 蠶婦의 艱難辛苦가 담겨있으니 늘 이것을 생각하며 비용을 줄이겠다[節用省費]는 다짐을 하였다.²⁸⁾ 이렇듯 국왕

26) 肅宗, <奏請使右議政崔錫鼎等, 回自燕京, 進畫帖一本, 乃耕織圖, 而清皇自製序文絕句而寫之, 書與畫皆刊印者也, 其所以形容稼穡女紅之艱者, 頗詳悉洵可觀也, 遂摸作二屏障, 欲以誨諭世子也, 各題律詩一首>(『列聖御製』 권10).

27) 肅宗, <題宋徽宗耕蠶圖>(『列聖御製』 권15). “余觀古畫, 自不無愛之心, 愛者即指神妙處, 而言非玩物喪志也. 若夫畫意非偶, 則亦未嘗不法善戒惡焉. 客歲之冬, 偶得短軸, 畫是道君之畫, 而圖是耕蠶之圖也. 以妙手而善容田家之辛苦·女紅之勤勞, 每一披閱, 若親見之, 可謂二美具於一幅也. 然而予所觀者在乎耕蠶, 丹青抑其次也.”

28) 英祖, <題耕織圖并贊>(『列聖御製』 권35). “夫國以民爲本, 民以食爲天, 可不重歟? 此耕織圖, 出於燕京, 而耕類廿三, 織類廿三, …(中略: 경지도 세부 내용 설명)…”

들은 耕織圖를 보면서 백성의辛苦를 아파하고 선정을 다짐하는 계기로 받아들였다.

다음은 숙종이 1710년(숙종 36)에 稼穡艱難圖를 보고 지은 <題稼穡艱難圖>이다. 詩序에 따르면 이 그림은 1681년(숙종 7) 李翻(1626~1688)의 집에서 구해보고 농가의 크고 작은 일이 모두 담겨있으나 병풍이 너무 크고 두 쪽으로 되어 있어서 화공에게 그러서 한 쪽의 병풍으로 만들게 하였다.²⁹⁾ 이 작품은 모두 4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제1수와 제3수를 차례로 살펴보자.

曾取邇詩畫素絹
更將新樣展金殿
窮閭蔀屋如身臨
蠶婦農夫若日見
愁痛艱難何暫忘
惠鮮懷保政宜先
爲治須法愛人章
節義分明在易傳

일찍이 邇風 七月篇을 비단에 그렸는데
새 그림을 다시 그려 궁궐에 펼쳐 냈네.
민간의 집들을 직접 가서 보는 듯
蠶婦와 농부를 날마다 보는 듯하네.
간난의 큰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리오?
백성들을 보살핌이 정사의 우선이네.³⁰⁾
정치는 모름지기 愛人章을 본받고³¹⁾
절의는 분명히 周易에 있다네.

可憐白骨布猶微
生髮纔乾籍已登
倒懸如此莫能解
靜夜無眠常歎興

가련도다 白骨布를 오히려 징수하고
태어나서 머리 겨우 마르자 軍籍에 올리네.
이와 같은 절박함을 능히 풀지 못하여
고요한 밤 잠 못든 채 탄식만 항상 하네.³²⁾

1수에서는 稼穡艱難圖를 통하여 田家의 생활상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니 백성들의 고통을 늘 염두에 두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는 다짐을 하

首尾四十六圖，農夫之艱辛·蠶婦之苦楚，若在眼前。噫，當其食而念一粒粟之出於農夫之辛苦，當其衣而念一尺帛之出於蠶婦之艱楚，推是心而足以節用，推是意而足以省費，此耕織四十六圖，豈不大可有益哉？仍以聶夷中傷田詩，參互於斯，而復以數句贊于左。…(下略)…

29) 肅宗, <題稼穡艱難圖>의 詩序(『列聖御製』 권11). “歲辛酉冬因大臣筵白, 取此圖本於故相臣李翻家而覽之, 仍付玉署, 使之圖進, 盖自孟春至于季冬, 凡田家之事無大無小, 悉以輸之, 座側誠不可一日無也. 第屏制太廣, 且分以二之, 不便於觀省, 更命畫工, 模作一屏, 詩以弁首.”

30) 『書經』 「無逸」에 “懷保小民, 惠鮮鰥寡”가 있다.

31) 『論語』 「學而」의 “子曰,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章用而愛人, 使民以時”를 말한다.

32) 肅宗, <題稼穡艱難圖>(『列聖御製』 권11).

고 있다. 治者의 도리는 安民에 있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 상례이다. 가뭄과 홍수, 蟲害 등으로 백성들은 항상 굶주리고, 관리는 백성들을 위무하지 않은 채 이미 죽은 자와 갓난아기까지 세금을 거두고 군적에 올리는 현실, 게다가 탐관오리가 사욕을 채우느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현실을 목도하니 차마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을 형상화했다.³³⁾ 시의 내용으로 보아 李翻의 집에 있던 그림을 모사한 稼穡艱難圖는 우리 나라 농촌의 현실을 異時同圖法으로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의 화면 속에 여러 가지 사건과 정황을 담은 異時同圖法은 三綱行實圖 등은 물론이고 다음에 살필 嶺東飢民圖 등에도 자주 보인다.

다음은 숙종이 1706년(숙종 32)에 吳命峻이 강원도에 監賑御史로 가서 백성들을 구휼하고 돌아와서 관동 饑民들의 참상과 구휼 모습 등을 그린 嶺東飢民圖를 진상하자 이를 보고 쓴 시이다.³⁴⁾ 모두 4수인데, 1수와 4수를 차례로 살펴보자.

活我東民賑事止 歸來闕下獻障子 憂國愛君同古人 揭圖殿壁代山水	관동 백성 救活하는 진휼을 마친 뒤 대궐로 돌아와서 병풍을 바쳤네. 憂國愛君은 옛 사람과 한 가지라 궁궐 벽에 걸어두고 산수도들 대신하네.
今年霽潦近來稀 誰料豐徵大有違 峽農可想災偏酷 何罪東民荐困饑	올해의 장마는 근래에 드무니 풍년 조짐 크게 어긋날 줄 누가 알았으리? 산골의 농민은 재앙이 매우 혹독하리니 무슨 죄로 관동 백성 기근이 계속되나? ³⁵⁾

오명준의 嶺東飢民圖(關東賑民圖)는 宋代 門監 鄭俠이 바친 飢民圖(流民圖)

33) 2수와 4수에서는 “旱蝗風水迭傷農，田卒汗菜歲荐凶，何時家國逢熙運，擊壤歌聲徹九重”，“漢多循吏民何悴，齊鼎烹阿國乃治。列州盡得如龔黃，豈慮元元澤不被”라 읊었다. 龔黃은 漢代의 循吏인 龔遂와 黃霸를 말한다.

34) 『肅宗實錄』 권43, 숙종 32년 6월 24일(경술)에 至誠으로 백성을 진휼하여 구제하고 飢民圖를 바친 오명준에게 虎皮를 하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35) 肅宗, <題江原道監賑御史吳命峻所進嶺東飢民圖>(『列聖御製』 권11). 2수와 3수는 “行乞操瓢菜色滿，忍飢就粥即無算。萬端愁痛如親看，對此心寒氣更短”，“關東土瘠又民貧，災害相仍儉歲頻。蒼生未有尊居樂，常若疾疴當我身”이다.

를 모방하여 그린 것이다. 시의 내용과 영조가 쓴 題跋을 통해 볼 때 嶺東飢民圖에는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백성들이 유랑하며 나무껍질과 풀뿌리를 먹는 모습, 영금영금 기어서 賑恤에 나아가서 성덕을 찬양하는 모습, 田稅를 독촉하는 아전의 모습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⁶⁾ 속중은 흉년이 들어 바가지를 들고 다니며 구걸하여 먹는 등 생계가 막막한 백성들의 참상을 보며 비통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이 그림을 궁궐에 걸어두고 爲民의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영조는 1726년에 三南에 굶주리는 백성들이 많은 것을 듣고 재해가 심한 곳에는 還穀과 身布를 탕감하고 大同米를 거둘 때 사나운 아전은 각별히 금지하라는 하교를 내렸다.³⁷⁾ 그리고 이때 오명준의 嶺東飢民圖를 보고 <題關東賑民圖>를 지어 恤民하는 뜻을 표현하였다.³⁸⁾

(2) 故事의 인식과 교화의 진작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실을 진단하고 그 방책을 세우는 훌륭한 전범이 될 수 있다. 수많은 사건과 인물 속에서 교훈을 얻고 현실을 타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덕목 가운데서 조선시대 국왕들은 忠孝烈을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였다. 『三綱行實圖』 유형의 서적 간행과 충효열을 행한 사람들에 대

36) 『肅宗實錄』 권43 속중 32년 6월 17일(계묘) 기사에는 그림 속에는 모두 곡식을 운반하여 분배해 진흥하는 일과 유민이 돌아와 모여 살면서 늙고 파리한 사람이 때 지어 讚祝하는 형상만이 그려져 있으니 그대의 그림이 진실로 아름답구나 鄭俠의 流民圖와는 뜻이 다르다고 하자 오명준이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 기록에 의한다면 오명준은 백성의 참상을 묘사하기보다는 임금의 은덕을 기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임금에게 일종의 아부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명준의 진의가 무엇이든지 간에 영동 기민들의 참상이 담겨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37) 『英祖實錄』 권9, 영조 2년 2월 7일(경오).

38) 英祖, <題關東賑民圖>(『列聖御製』 권35). “此嶺東監賑圖, 卽與在先朝丁亥夏(丁亥는 丙戌의 잘못·필자), 繡衣吳命俊畢賑, 復命之日, 倣宋臣事, 而圖進者也. 予觀列聖御製中聖考御製詩, 仍以取覽新圖, 皆傷心而慘目者也. …中略(굶주리는 백성들의 참상과 진흥하는 모습)… 一展此圖, 歷歷在眼, 誠可謂善畫其樣, 而噫當今三南民饑之狀, 正如此圖, 而既不能遣御史而監賑, 又未能多轉運而補賑, 吁嗟生民望何而加額, 奚恃以生活耶? …中略… 且御製詩四句, 其如傷之德意, 謫然於辭旨之間, 而亦可以仰惟垂戒之聖意矣. 小子敢不服膺而益勉哉. 略記其概, 用表予繼述恤民之意也夫.

한 표창을 통하여 모범을 드리우려 하였고, 역사적 인물과 사건 중에서 褒貶이 될만한 것을 가려 勸善懲惡의 본보기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 그 의미를 부각하고 백성들을 교화하고자 하였다.

조선후기 국왕의 시문 중에서 역대의 故事圖를 보고 지은 작품으로는 숙종의 <題壽亭侯關雲長圖>, <題關王圖>, <題朱雲折檻圖>, <題武穆鄂王圖>, <題荀息諫晉靈公圖>, <題阿房宮圖>, <題赤壁鏖兵圖>, <題句踐嘗膽圖>, <題荊軻大鬧秦宮圖>, <題蜀相伐魏圖>, <題三顧草廬圖>, <題城上拜天子圖>, <題昭烈遇司馬徽圖>, <朱雲折檻圖贊并序>, <唐畫三顧草廬圖贊>, 영조의 <題孫武演陣圖>, <題隆中豪士圖>, 정조의 <題折檻圖>, 익종의 <題吉治隱抗節圖>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畫題를 통하여 조선후기 국왕 제화시의 주요한 경향은 忠과 節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關羽·諸葛亮·朱雲·岳飛·吉再 등은 왕실에 충절을 지켰거나 忠諫한 인물이다. 특히 諸葛亮과 關羽, 岳飛 등은 그들의 충절 못지 않게 大明義理 내지는 '朝鮮中華主義'와 관련하여 조선후기에 숭앙된 인물이다. 조선후기의 국왕들은 이들을 그린 그림을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충절을 고양하는 한편 왕권강화책으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진시황과 조조 등을 통하여 폭정을 경계하기도 하였고, 양만춘을 통하여 그의 위용과 우리의 옛 땅에 관심을 은연 중에 드러내기도 하였다. 대부분 중국의 故事圖를 보고 제영하였지만 양만춘과 길재의 경우처럼 우리의 역사에서 취제한 그림을 보고 쓴 작품도 있어 주목된다.

먼저 숙종이 관우의 그림을 보고 지은 <題壽亭侯關雲長圖>를 살펴보자.

將軍節義遠流芳
扶漢精忠凜若霜
志切中興身便死
千秋烈士淚霑裳

장군계선 절의 있어 멀리 명성 떨쳤으니
한을 도운 精忠은 서리처럼 늠름하네.
중흥에 뜻을 두다 몸이 먼저 죽어서
천 년토록 열사 눈물 옷깃을 적시네.³⁹⁾

숙종은 한나라 왕실을 회복하려다 죽은 관우의 추상 같은 節義와 精忠을 기리고, 그 죽음을 애도하였다. 악비를 시화한 <題武穆鄂王圖>⁴⁰⁾에서는 악비의

39) 肅宗, <題壽亭侯關雲長圖>(『列聖御製』 권9).

40) 肅宗, <題武穆鄂王圖>(『列聖御製』 권9). “報主誠忠出萬萬, 欲恢王業大功建. 若非

精忠輔國을 기린 뒤 만약 악비가 秦檜의 모함으로 죽지 않았다면 중국이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치욕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개하였다. 그리고 <題阿房宮圖>에서는 호화로운 아방궁을 지어 백성들을 피폐하게 한 진시황의 폭정을 비판하고 그 멸망이 당연함을 시화하였다.⁴¹⁾

다음은 숙종이 1715년(숙종 41)에 양만춘이 안시성에서 당태종의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그린 城上拜天子圖를 보고 지은 작품이다.

一片孤城固守之
當年麗業賴茲持
載旋車馬秋風動
更耀兵戈彩杖移
天子褒嘉應勳節
將軍偃僕已登陴
至今遺址人多見
我獨依條畫裏知

한 조각 외로운 성을 굳게 지켰으니
그 옛날 고구려 왕업은 여기에 힘입었지.
거마를 되돌려서 추풍에 이동하고
무기를 번쩍이며 고운 의장 옮겨가네.
천자가 기리며 절개를 격려했고
장군은 절을 하며 이미 성에 올랐네.
지금까지 남은 터를 남들은 많이 보았지만
나는 오직 어렴풋이 그림 통해 안다네.⁴²⁾

을지문덕이 수양제의 대군을 살수에서 격퇴하여 고구려의 왕업을 보존하였듯이 양만춘도 당태종의 침략을 격퇴하여 고구려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당태종은 대군을 되돌려 돌아가면서 양만춘의 용맹함을 격려하고 비단을 주었는데, 그를 진송하는 양만춘의 위용, 나아가 외세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의 장엄한 역사를 반추하고 있다. 그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호령하던 그 땅을 이제는 이민족인 청이 지배하고 있고, 사행을 하며 그곳을 보는 우리의 사신 일행, 나아가 그림을 통해서 숙종은 그 영광을 되새기며 고토의 회복과 응혼한 민족혼을 일깨우려 했는지도 모른다. 숙종은 이전에도 <城上拜天子>에서 양만춘의 精忠을 기리고 그로 인하여 海東의 왕업이 이어지게 되었다고 칭송하였다.⁴³⁾ 양만춘의

賊檜通天兇，千載寧遺五國恨。”

41) 肅宗, <題阿房宮圖>(『列聖御製』 권10). “祖龍何事大興工，虛作阿房四海窮。金殿嵯峨千戶啓，玉樓敞豁萬人容。周馳直亘南山下，羅絡相通渭水中。誰識纒傳三二世，咸陽一炬月餘紅。”

42) 肅宗, <題城上拜天子圖>(『列聖御製』 권12).

43) 肅宗, <城上拜天子>(『列聖御製』 권9). “守節彈丸抗六師，海東王業更無虧。城頭八尺偃僕日，循國精忠萬古垂。”

훈업을 읊은 城上拜가 조선후기의 樂府題에 자주 보이는 것도 당대인의 이러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정조가 동궁으로 있던 1766년(영조 42)에 한나라 朱雲의 고사를 그린 折檻圖를 보고 지은 작품이다.

尙方劍借鐵腸堅
折檻危忠正凜然
凡百後人知所懼
千秋遺跡畫圖傳

尙方劍을 빌리려 한 철석같은 마음이라
감옥을 깨뜨린 충언이 정말로 늠름하네.
수많은 후인들이 두려운 것 알게 되니
천 년토록 행적이 그림으로 전해지네.⁴⁴⁾

주운은 한나라 때의 諫官으로 成帝가 安昌侯 張禹를 재상으로 삼아 총애하고 장우가 아침을 하자 임금께 장우의 죄를 말하고 상방검을 빌려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임금이 대노하여 궁중의 감옥에 가두었는데, 감옥을 부여잡자 감옥이 무너졌고 여러 신하들이 주청을 올려 풀려나게 되었다.⁴⁵⁾ 정조는 주운의 고사를 통하여 간관들이 직언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니와 숙종도 이전에 折檻圖를 보고 주운의 直諫을 높게 평가하였다.⁴⁶⁾

(3) 지도의 제작과 국방의 강화

지도에는 한 국가의 지리와 강역은 물론이고, 列郡과 城堡 등의 경제·군사적 기밀이 담겨 있어 지도의 제작과 관리는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전통적인 지도는 오늘날의 서양식 지도와는 달리 상당수가 회화적 기법과 구성을 취하고 있어 지도와 회화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지도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私撰 내지 국외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일례로 1713년에 대신들은 청이 우리의 지도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논의하기도 하였다.⁴⁷⁾ 또한 정조도 국방강화책의 일환으로 城制를 그린 圖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四都八路營閫邑堡之城圖를 화공에게 그리도록 명하기

44) 正祖, <題折檻圖>(『列聖御製』 권38).
45) 『漢書』 권67, <楊胡朱梅傳>.
46) 肅宗, <題朱雲折檻圖>(『列聖御製』 권9). “漢室運丁否, 五侯迭擅權. 具臣懷保祿, 正士憶繩愆. 借劍奸諛送, 攀欄志節堅. 賢哉槐里令, 萬古汗青傳.”
47) 『肅宗實錄』 권54, 숙종 39년 6월 2일(정축) 기사 참조.

도 하였다.⁴⁸⁾

조선후기 국왕의 시문 중에서 지도를 보고 지은 것으로는 숙종의 <東國地圖>, <八路列邑輿地之圖自備局圖進>, <八路嶺海關隘之圖自備局圖進>, <題白頭山圖>, <題耽羅地圖>, 정조의 <天下地圖>, <題關西地圖三首>, <萬里長城圖>, <白頭山祀式方議加品際閱地圖書此>, <題城圖全篇> 등을 들 수 있다.

山河疆場數千外	나라의 산하 수천 리를
費盡心機一幅繪	마음 다해 한 폭으로 그려냈네.
海東雖小侔中華	동방이 작더라도 中華를 이었으니
以德行仁豈待大	仁德을 행한다면 어찌 큰 것 기다리리? ⁴⁹⁾

위의 시는 숙종이 1677년(숙종 23) 여름에 <東國地圖>를 보고 지은 것이다. 간결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언제 제작된 지도를 읊은 것인지는 알 수 없고 낱장의 회화식 진도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조선이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中華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으니 국토의 크고 작음은 따질 것이 없다고 하여 문화적 자존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숙종은 1704년(숙종 30) 비변사에서 제작한 <八路列邑輿地之圖自備局圖進>과 <八路嶺海關隘之圖自備局圖進>을 보고 題詩하였는데, 다음은 <八路嶺海關隘之圖自備局圖進>이다.

一幅輪關隘	關防이 한 폭에 담겨있어
圖開即瞭然	지도 펴자 곧바로 명료하네.
美哉多險阻	험준한 곳 많음이 아름답고
允矣衛朝鮮	조선을 호위함이 미덥구나.
北塞殊方接	북쪽은 타국과 접하고
南陲卉服連	남쪽은 일본과 이어졌네. ⁵⁰⁾

48) 正祖, <題城圖全篇>(『列聖御製』 권43). “圖者形也, 書者言也, 有形而後有言也. 故圖先於書, 而書不可言者, 圖以傳其形, …(中略)… 然猶不知方乃城制之如何也. 乃命畫史, 作四都八路營閫邑堡之城圖, 仍附之以事實, 雖廣狹平仄之各殊, 虛實疏密之不同, 卽此而求, 如指掌紋, 若使衆心, 固結而成城焉, 則是圖也, 亦可謂筌蹄也.”

49) 肅宗, <東國地圖>(『列聖御製』 권10).

50) 卉服은 칩 등 풀로 만든 옷을 입는 민족으로 흔히 島夷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縹緲寧可緩 방어함을 어찌 느슨하게 하리오?
宜迨未陰天 아직 陰天⁵¹⁾으로 쫓겨가지 않았거니⁵²⁾

우리나라는 산천이 험준하고 견고하지만 남북으로 청과 일본이 있으니 방어에 만전을 기해야함을 역설하고 있다. 양란 이후 산성을 수축하고 진보를 설치하여 국방을 강화하였는데, 비변사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列畧과 鎭堡 등을 상세하게 그린 지도를 제작하였다. 한편 이 당시 조선에서는 청이 멸망하여 그들의 본거지인 영고탑과 오랄 등으로 돌아갈 때 조선을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비책을 강구하였는데, 李頤命은 1705년(숙종 31)에 『籌勝必覽』을 얻어 비변사에서 모사하도록 주청하였고 이듬해 정월에 遼薊關防圖를 진상하였다. 이처럼 조선과 遼薊 지역에 대한 지도의 제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主敵인 청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繪畫觀猶壯	그림으로 보아도 장대하네
登山氣若何	산에 오르면 기상이 어떠하랴?
雲霄誰謂遠	하늘을 그 누가 멀다고 하는가?
星斗定應摩	별들을 웅당 만질 수 있으리.
巔有深深水	산 정상에 깊고 깊은 물이 있어
流爲浩浩河	흘러내려 드넓은 강물이 된다네.
向時爭界慮	지난 날 定界하던 근심이
從此自消磨	이로부터 저절로 없어졌네. ⁵³⁾

위의 시는 숙종의 <題白頭山圖>로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그린 지도를 보고 그 드높고 웅장한 기상에 감탄하는 심정을 담아내는 한편 청과의 국경 분쟁이 일단락된 뒤의 안도감을 표현하였다. 숙종은 白頭山定界碑를 세우는 과정에서 白頭山圖를 그려오도록 하였으며 1712년 4월 7일에 함경남북도의 兵使 張

일본을 말한다.

- 51) 陰天은 陰山과 天山(일명 燕然山)으로 오늘날의 내몽고 자치 구역에 뻗어있는 산맥이다. 이 구절은 청이 아직도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표현한 것이다.
52) 肅宗, <八路嶺海關隘之圖自備局圖進>(『列聖御製』 권10).
53) 肅宗, <題白頭山圖>(『列聖御製』 권12). 본래 2수로 나머지 1수는 別編 권2에 실려 있으며 시는 “昭有中朝誌, 僭稱又盛京. 地曾金汗據, 山是白頭名. 痛運移皇祚, 驚塵滿帝城. 如何重此岳, 可笑發祥禎.”이다.

漢相과 尹愷이 백두산 圖本을 바쳤다.⁵⁴⁾ 숙종이 백두산도를 보고 시를 지은 것이 1712년 5월 중순에서 유두일 직전이므로 <題白頭山圖>는 이때 바친 圖本을 보고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도 1767년(영조 44)에 백두산도를 보고 시를 지었다.⁵⁵⁾

山河包絡際無外
歷歷移來一幅繪
萬國提封如此耶
吾猶不識九州大

산하가 펼쳐서 끝없이 드넓은데
한 폭의 그림으로 역력히 옮겨왔네.
만국의 疆域이 진정 이와 같은가?
나는야 九州⁵⁶⁾가 큰 것을 모른다네.⁵⁷⁾

위의 시는 정조가 1766년(영조 43)에 天下地圖를 보고 지은 것이다. 한 폭에 그려진 세계의 산하와 강역을 보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18세기 중반 이후에 선교사 등을 통하여 세계지도가 국내에 유입되었는데, 이러한 세계지도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회의를 갖도록 하였다. 세계지도는 중국 이외에 더 큰 세계가 존재함을 자각하도록 하여 인식의 대전환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후기의 국왕들은 지도의 제작 내지 수용을 통하여 국방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삼는 한편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이루었다.

(4) 명승의 재현과 산하의 발견

조선후기에는 자주적 문화의식이 강화되면서 우리의 역사와 풍속, 산천 등을 시와 그림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이 왕성하게 일어났다. 이전 그림의 경우 중국의 화풍을 모방하거나 상상력을 발동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볼 때 문인과 화공이 전국을 직접 탐방하며 詩畫를 제작한 것은 일대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지

54) 『肅宗實錄』 권51, 숙종 38년 4월 7일(기미).

55) 正祖, <白頭山祀式方議加品際閣地圖書此>(『列聖御製』 권38). “有屹高岑鎮北關, 兒孫羅列九州山. 聖朝祀典斯爲重, 佳氣長留宇宙間.”

56) 고대 중국을 아홉으로 구분한 것으로 冀州, 兗州, 青州, 徐州, 揚州, 荊州, 豫州, 梁州, 雍州를 말한다.

57) 正祖, <天下地圖>(『列聖御製』 권38).

만 집권층의 옹호 아래 우리의 산천과 풍속 등을 화폭에 담으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하나의 시대 조류를 형성하였다.

조선후기 국왕의 시문 중에서 우리의 산하를 그린 그림을 보고 지은 것으로는 숙종의 <題楓嶽圖屏障>, <題流霞亭圖>, <題良工李澄山水圖>, <題鷺島全景圖>, 정조의 <關麟坪大君泛舟東湖圖遂步其韻>, <有人自楓嶽歸以關東圖屏示余書其屏以還八首>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은 숙종이 1697년(숙종 23)에 어떤 사람에게서 金剛山圖를 받아 병풍으로 만든 뒤에 지은 <題楓嶽圖屏障>이다.

有人示我涅槃圖
萬二千峰數幅輸
鶴舞高臺非世界
仙遊深洞卽蓬壺
梅檀杉檜依依辨
佛宇僧房歷歷摸
並立雪巒瞻日月
遙臨滄海滌愁
蜿蜒淑氣無雙地
形勝分明第一區
能使中華偏嚮慕
豈徒國俗好爭徂
却思濫鬱金宮裏
描作屏風玉座右
內外渾然皆造化
如親寓目興難孤

어떤 이가 나에게 涅槃圖를 보여주니
만이천 봉우리가 몇 폭에 옮겨졌네.
학이 높은 대에서 춤추니 人世가 아니고
신선이 깊은 골에서 노니니 蓬萊라네.
단향 박달 삼과 회나무는 희미하게 구별되고
절간과 승방은 뚜렷하게 그려졌네.
雪山에 서서 해와 달을 바라보고
창해에 임하여 시름을 씻어내네.
구불구불 맑은 기운 다른 곳엔 없으니
형승은 분명히 제일이라네.
중국인도 무척이나 그리워하였으니
어찌 國俗에서 다투어 가지 않으리오?
대궐 속의 울적함을 없애려 하여서
병풍을 만들어서 옥좌 옆에 두었네.
내외가 혼연히 모두다 조화 있어
눈으로 직접 보듯 흥이 외롭지 않네.⁵⁸⁾

일만 이천 봉우리가 그려진 금강산의 전경에서 봉우리와 골짜기에 있는 수목과 사찰로 시선을 이동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다가 선경에 견줄만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며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臥遊의 방편으로 병풍으로 제작하여 옥좌에 두고 산수를 보는 즐거움을 노래하였다. 이 금강산도는 현재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없지만 비교적 실경에 의거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선후기에 시문과 그림을 통하여 臥遊

58) 肅宗, <題楓嶽圖屏障>(『列聖御製』 권10).

하는 풍조가 유행하였는데, 숙종의 이 시도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숙종은 <題鷺島全景圖>⁵⁹⁾에서도 오랜 병으로 破寂거리가 없던 차에 누워서 세 그림을 펼쳐본다고 하여 그림이 와유의 방편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정조가 1767년(영조 43)에 麟坪大君(1622~1658)이 東湖에서 뱃놀이 하던 장면을 그린 泛舟東湖圖를 보고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東湖十里畫中收
水欲有聲山更幽
極浦帆檣雲遠近
團沙鷗鷺日沈浮
蒹葭是夜多清露
絲竹何年鬧晚秋
月夕花晨來去地
麒麟公子好觀遊

십 리의 東湖가 그림에 옮겨지니
물소리 들리는 듯 산은 더욱 고요하네.
먼 포구의 돛단배는 원근에 떠있고
모래밭의 물새는 날마다 부침하네.
오늘밤 갈대밭에 맑은 이슬 축축한데
어느 해 늦가을에 악기 소리 드높았나?
달뜨는 저녁 꽃피는 아침에 오가던 땅에서
기린 공자는 좋은 유람하였었지.⁶⁰⁾

인평대군은 詩書畫에 능하였는데, 현재 山水圖, 老僧遐觀圖, 古栢圖 등이 남아 있다. 泛舟東湖圖는 인평대군이 자신의 사저가 있던 豆毛浦 주변에서 가을에 船遊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고요한 산과 찰랑이는 물결, 모래밭의 물새와 포구 여기저기에 떠있는 돛단배 등의 모습과 악기를 잡으며 풍류를 즐기는 인평대군의 선유 장면이 화폭 속에 담겨있던 듯하다. 정조는 1775년(영조 51)에 어떤 사람에게서 關東圖 병풍을 받고 8수를 제시하여 보내기도 하였다.⁶¹⁾

59) 숙종은 <題鷺島全景圖>(『列聖御製』 권12) 1구와 2구에서 “久病難爲破寂資, 新圖適至臥而披”라 하였다.

60) 正祖, <閱麟坪大君泛舟東湖圖遂步其韻>(『列聖御製』 권38).

61) 正祖, <有人自楓嶽歸以關東圖屏示余書其屏以還八首>(『列聖御製』 권38). 8수의 화제는 鏡浦臺帖, 洛山寺帖, 萬景臺帖, 越松亭帖, 三日浦帖, 叢石亭帖, 竹西樓帖, 望洋亭帖이다.

IV. 국왕 제화시의 역사적 의미

제화시는 문학 행위의 한 형태로 중의적 의미를 함축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의 국왕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보고 시문으로 표현한 것은 기본적으로 문예적 취미에서 출발한 것이겠지만 그 속에는 정치적 함의가 담겨있을 수도 있다. 선조가 王竹·惡竹·正筍을 그려 자신과 光海君, 永昌大君의 관계를 우의적으로 드러낸 것은 그 실례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또한 시대에 따라 畫題가 변화하고 특정한 화제를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그 시대의 회화 경향을 반영하는 동시에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의 제화시가 작품의 편수 뿐만 아니라 화제가 바뀌는 것은 유념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전기에는 비록 제화시가 매우 적고 산수도 계열 작품의 비중이 높으며 畫題도 불명확한 것이 많은데 비하여 조선후기의 제화시는 화제가 분명하게 적시되고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후기에는 산수도, 화상찬류의 인물도, 화훼영모도, 신선도 계열의 그림에 題詩할 때에도 대부분 화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風俗圖·故事圖·地圖 등의 그림이 집중적으로 선택되어 시문으로 형상화되었는데, 이는 왕권의 강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숙종의 경우 가장 많고 다양한 제화시를 남기고 있는데 여기에는 왕권 강화라는 정치적 함의가 깊숙히 자리하고 있다. 숙종은 즉위한 이듬해인 1675년(숙종 1) 11월에 조각배 한 척이 만경창파에 떠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舟水圖說>을 지어 임금의 政教가 사방에 미치면 나라가 편안해지고 간사한 무리가 사라져 나라에 무궁한 아름다움이 있게 될 것이라 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였다.⁶²⁾ 어린 나이에 즉위한 숙종의 충기와 함께 왕권 강화를 목표로 한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숙종은 趙孟頫의 幽風七月篇模本을 중간하고 양란으로 소실된 역대 국왕의 御眞을 다시 모사하고 이를 봉안할 眞殿을 짓는 한편 민생의 안정과 유교 윤리의 보급, 국방의 강화 등에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왕권 강화를 위한 숙종의 치밀한 계획 아래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62) 『肅宗實錄』 권1의 숙종 1년 11월 8일과 16일의 기사 참조. 『列聖御製』 권15의 <舟水圖說> 참조.

이러한 정책과 연관지를 때 속중이 풍속도·고사도·지도 등에 집중적으로 題詩한 의미가 명확하게 부각된다. 속중은 幽風七月圖·耕織圖·稼穡艱難圖·嶺東飢民圖 등에 제시하여 백성과 동고동락하는 국왕의 애민의식을 보여주었고, 역대에 충절을 지킨 인물의 고사도 등에 제시하여 精忠輔國을 유도하였고, 鎭堡를 수축하고 지도를 제작하여 국방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시문으로 형상화하였다. 속중의 이러한 정책은 영조와 정조에게도 계승되었거니와 蕩平과 민생의 안정을 통하여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였고, 제화시를 통하여 충절·애민·부국강병의 뜻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제화시라는 문학적 양식을 통하여 국왕의 문예적 취향을 드러내는 한편 정치적 지향을 보여준 것이 조선후기 국왕 제화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제화시의 비중이 현저하게 약화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거의 사라지고 말았다. 이것은 19세기 중반정부터 세도정치가 강화되면서 君權이 약화된 것과는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왕의 제화시는 당대의 정책 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시에 당대 화풍의 변화를 일정 정도 반영하고 영향을 주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18세기에 鄭勳과 金弘道 등의 주도하에 우리의 산수와 풍속을 담은 그림이 시대의 조류를 형성하였다. 앞서 살핀 풍속도 내지 동국산수화는 이러한 경향을 추동하고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국왕의 제화시를 통하여 당대 궁실 소장 그림의 수집 경로와 목록을 고찰하는 데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列聖御製』에 수록된 제화시에는 일부 그림의 경우 소장 경로가 명시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제화시를 쓸 당시에는 적어도 그 그림이 왕실에 소장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 나아가 『列聖御製』 이외에 『奎章總目』의 書畫譜, 『奉謨堂奉安御書總目』의 御書, 『承華樓書目』의 畫家類·畫帖·畫簇·畫橫披·畫聯·畫橫軸 부분 등을 검토하면 조선왕실의 그림 소장 목록을 좀더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列聖御製』 내지는 궁중의 書目을 종합하여 조선시대 왕실의 圖書目錄을 작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열성어제(列聖御製), 국왕제화시(國王題畫詩)

부록 : 『列聖御製』 수록 조선 국왕의 제화시 목록

太祖大王

권1 : 題西京影殿御容.

世祖大王

권3 : 出四時圖簇示羣臣御製詩令判司宰監事成任書于簇.

成宗大王

권5 : 寫蘭竹併題(二首), 今以摸畫自南方來水鳥二首稱鳥者名加爾鳥灰者名蘆未鳥者自遠而來馴甚故賜食銀魚九尾頃刻而吞眞貪魚鳥也而於畫無用故兼送放灰鳥放池一笑併拙詩, 題畫(二首).

권6 : 尊兄畫像贊.

宣祖大王

권7 : 題畫, 題畫.

肅宗大王

권9 : 列仙圖, 瞻拜資政殿太祖御容, 題壽亭侯關雲長圖, 題畫猿, 題關王圖, 題朱雲折檻圖, 題武穆鄂王圖, 國舅光城府院君第二子校理金鎮圭之畫格殆無異於中原名筆矣厥後偶見其姪幼學普澤手描則畫法相傳難弟難兄蓋儒者之於丹青等事不專學習而其爲精妙如此亦天才也爰取唐詩中獨坐幽篁裏彈琴復長嘯與眞珠簾外梧桐影燈底裁縫剪刀冷二句爲題并素練數幅使之畫進圖成作二障子遂以絕句各弁于首(二首), 仁祖大王御畫求覓於東平君矣果獻一金筆卽乘槎之圖也筆力神異手澤宛然雙手擎來感慕深增謹以御畫糊之他紙作之障子敬題一絕以寓欽玩焉, 題荀息諫晉靈公圖, 題恭愍王天山大獵圖.

권10 : 題阿房宮圖, 東國地圖, 三昨書雲觀進天文圖覽了吟得卿其和進, 畫意, 題赤

壁鑿兵圖, 題楓嶽圖屏障, 奏請使右議政崔錫鼎等回自燕京進畫帖一本乃耕織圖而清皇自製序文絕句而寫之書與畫皆刊印者也其所以形容稼穡女紅之艱者頗詳悉洵可觀也遂摸作二屏障欲以誨諭世子也各題律詩一首(二首), 題虎圖, 題彪圖, 題流霞亭圖, 謹題皇明宣宗御畫摸本, 題崇禎閣老王鐸畫竹, 題唐女回姐畫簇(二首), 題雲裏雙龍圖(二首), 題九里山十面埋伏圖, 題郭子儀行樂圖賜王子, 題呂洞賓圖, 八路列邑輿地之圖自備局圖進, 八路嶺海關隘之圖自備局圖進, 題良工李澄山水圖(二首), 次趙子昂人馬圖韻(二首), 題句踐嘗膽圖.

권11 : 題趙孟頫八駿圖(二首), 題百鴈圖, 題孟永光八仙圖摸寫, 題島夷出獵圖, 次唐詩畫譜中李白春景韻, 次唐詩畫譜中李白夏景韻, 題荊軻大鬧秦宮圖(四首), 題蕭弄雙跨龍鳳圖, 題吳王寵幸西施圖, 題唐史志圖, 題江原道監賑御史吳命峻所進嶺東飢民圖(四首), 題孟津白魚入龍舟圖, 予偶得二幅刺繡乃關武安王乘赤兔馬提青龍刀圖也噫武安王精忠大節予之素所愛重不可褻玩也遂略加刺繡一作得乘赤兔之圖一作千里獨行之圖分粧兩障子各題一絕句(二首), 題牽牛過堂下圖, 題蜀相伐魏圖, 題鯉魚圖, 題西儒湯若望天文圖屏風, 題黃龍負舟圖, 題郭汾陽行樂圖, 題蘭亭圖, 題滕王閣圖, 題宋徽宗白鷹圖(三首), 題天鵝圖, 題稼穡艱難圖(四首), 題延礪君自畫仙人圖, 題儒川君澗梅花圖.

권12 : 觀銅人明堂圖(二首), 題漢武帝遊行至海上圖(五首), 題壁畫(四首-躬耕有莘, 夢賚良弼, 訪于渭陽, 三顧草廬), 題白頭山圖, 題圖屏, 題西園雅集圖, 癸巳夏影子圖寫訖遂題一絕用示予意, 題延礪君圖寫山水人物, 題鷺島全景圖, 題鶴林正慶胤人馬圖, 李明郁畫才精妙孟永光後一人也近歲李澄雖稱名畫妙則未也頃年以李明郁三字及續虛舟筆意五字刻兩箇圖書特賜明郁俾踏摸寫下端矣更思之以明郁之妙手方之李澄似不襯合欲以續樂癡筆意改刻以給而未果今則死已久矣良可惜也, 箕子遺像詩, 題李明郁水墨人物圖, 題王嬙圖, 題三顧草廬圖(四首), 題謝玄破秦百萬兵圖, 題細柳營勞軍圖, 題馬遠山水人物圖, 壽福祿三星唐畫, 題金鎖主描寫水墨仙人, 題陳搏墮驢圖, 題漁樵問答圖, 題瑤池大會圖, 題城上拜天子圖, 題古畫, 題邊景昭鸚鵡圖, 題昭烈遇司馬徽圖(二首), 題九駒圖, 題耽羅地圖(四首), 詠畫月桂兔

唐扇, 題江湖秋景古畫(二首), 題蒼龍圖, 題漁樂圖, 題呂紀孔雀畫, 題宋徽宗畫鷹, 題七十二候圖, 畫馬, 畫猫, 題劉孫駐馬圖.

권14 : 歷代君臣圖像小帖序, 齊威王封卽墨大夫烹阿大夫圖小序.

권15 : 題宋徽宗耕蠶圖, 題唐玄宗觀無逸圖, 題南郭隱几圖, 題花善君水墨翎毛障子, 題趙松雪九馬飲飼圖, 題海東名畫摸寫軸, 題隋煬帝遊幸圖, 舟水圖說, 十二月圖說, 武安王圖像銘并小序.

권16 : 國舅光城府院君圖像贊, 題諸葛武侯圖贊, 題朱晦菴圖贊, 潛谷金相國畫像贊, 岳鄂王圖像贊, 文丞相圖像贊, 題安平書屏贊, 養正圖贊, 太祖大王所御八駿馬圖贊并小序, 圃隱文集中見遺像有感作贊, 朱雲折檻圖贊并序, 寫本精忠錄岳王像贊, 仁穆王后御筆仁獻王后親繡仁祖大王御畫贊并小序, 左議政金昌集畫像贊, 唐畫三顧草廬贊, 題摸寫先正臣栗谷母所寫草蟲屏風, 灘隱墨竹八幅屏風.

英宗大王

권18 : 題山水圖八首, 題孫武演陣圖, 題唐畫十二首, 題望見滄海一輪紅圖五首, 題隆中豪士圖.

권19 : 題圖, 覽古勳臣畫像而作五首(益安大君遺像, 牧隱李穡畫像, 青海伯李之蘭畫像, 翼成公黃喜畫像, 鰲城府院君李恒福畫像).

권20 : 摹寫影幀時作六首, 題古屏二首并小序.

권21 : 題青山白雲圖.

권35 : 題關東賑民圖, 題耕織圖并贊, 題六十四歲圖像.

권36 : 夙興夜寐箴圖下小識, 皇朝恩賜蟒衣寶章及御製御筆御畫置小識.

권37 : 皇朝寶篆我朝笠飾圖署銘并小序, 月光蒼蠅圖贊, 文丞相畫像贊并小序, 敬次御製金文貞公潛谷畫像贊令知申趙明履題其小像, 見故相貞簡公鄭琢畫像書示其五代孫承旨玉, 今因書示承旨追思頃年都監時見卿畫像今又命耆杜圖寫故特賜數句卿須書諸綃面領予此意.

肅宗大王

別編2 : 題贈領議政吳達濟梅花圖, 題皇明英烈傳圖八幅屏障, 題白頭山圖, 謹題大明宣宗皇帝御製水墨圖.

英宗大王

別編3 : 穆廟御畫小識.

正宗大王

권38 : 題折檻圖, 天下地圖, 書進宴圖襖屏, 題關西地圖三首(練光亭, 降仙樓, 百祥樓), 陰山大獵屏, 萬里長城圖, 題周穆王八駿圖, 白頭山祀式方議加品際闕地圖書此, 闕麟坪大君泛舟東湖圖遂步其韻, 壁畫, 題畫扇, 有人自楓嶽歸以關東圖屏示余書其屏以還八首(鏡浦臺帖, 洛山寺帖, 萬景臺帖, 越松亭帖, 三日浦帖, 叢石亭帖, 竹西樓帖, 望洋亭帖).

권43 : 畫像自贊庚寅, 御畫贊, 敬次肅廟大朝御製韻題文貞公金堉小眞, 益安大君畫像贊丁未, 西山大師畫像堂銘并序甲寅, 題文忠公柳成龍家藏皇朝諸將書畫帖, 題城圖全篇.

純宗大王

권79 : 屏畫序, 城市畫記.

翼宗大王

권91 : 酉山觀燈市圖, 題吉治隱抗節圖.

권92 : 詠雪梅圖, 題梅妃圖, 龜文圖.

권93 : 題江山圖障, 西湖圖墨, 題畫唵.

권95 : 畫像自贊.

哲宗大王

권101 : 金洙根畫象贊, 金汶根畫象贊, 金左根畫象贊.

<Abstract>

A Study on kings' poems with pictures of Yulsôngôje(列聖御製)

Kim, Nam-Gi

The Yulsôngôje(列聖御製) is the collection of poems which were written by the many kings of Chosun dynasty, from Taezo to Chulzong. This article examined the change of the kings' view to the pictures and the meaning of it, by studying various kings' poems with pictures.

There were not many kings who drew the pictures or wrote poems inspired by their pictures. A few kings, Sungjong, Injong, Sunjo, Injo, Youngjo etc., can be identified as the kings written poems with picture. However they drew the pictures with the limited theme drawing the Four Gracious plants like bamboo or orchid, under the strict rule of Confucianism.

The poems with pictures by the kings were rare and simple repeating theme of pictures, in the early period of Chosun. However, those in the late period were abundant and various in number and in theme, too. They showed the kings' new view with the various themes, like as the custom paintings shown the daily life of ordinary people, educational paintings based on historical hero or facts, landscape paintings drawn just their mountains and rivers and maps reflected kings' will toward protection their kingdom.

Especially, the poems with painting of Sukjong and Youngjo were related to the new trend of the paintings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and with the object of reenforcing royal authority.

The Yulsôngôje has another important meaning that helps to find the way and state of painting collection of Chosun.

Key words: Yulsôngôje, kings' poems with pictures, royal authority, he new trend of the paintings